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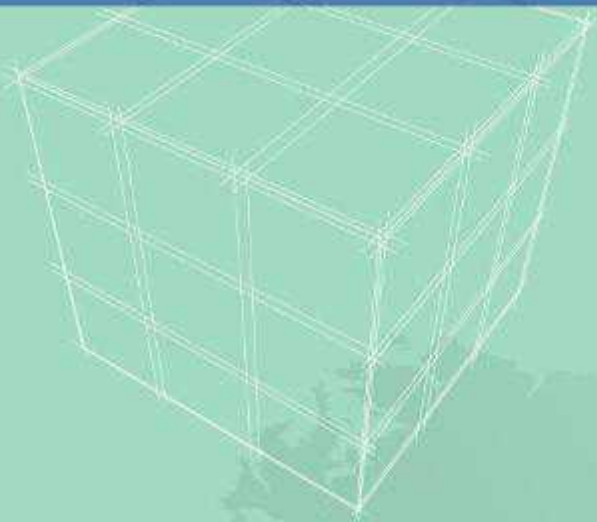
현안과제연구

2011. 5. 30

기업의 지역경제기여에 대한 주민인식조사 분석

- 농공단지와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방안 연구 -

연구수행 : 김양중



기업의 지역경제기여에 대한

주민인식조사 분석

- 농공단지와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방안 연구-

연구수행 : 김양중(지역경제연구부)

목 차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2

3. 분석결과 / 3

1)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인식 / 3

2) 기업의 상생협력 실태 / 7

3) 상생협력하는 기업에 대한 의견 / 10

4) 상생협력에 노력하는 기업의 차별화 지원에 대한 의견 / 12

5) 상생협력 프로그램 중요도 분석 / 14

4. 결론 및 요약 /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업의 유치는 그동안 충남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었음
 - 특히 외투기업 및 국내 대기업의 유치는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기업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정비와 획기적인 투자지원제도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
- 그러나 투자유치가 난개발, 지역 간 불균형, 주민과의 갈등,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충남의 GRDP는 서울, 경기, 경남, 경북에 이어 5위이며 1인당 GRDP는 울산에 이어 2위이고, GRDP 성장률은 1위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비중 1위, 고령인구비율 4위, 민간소비지출 11위, 재정자립도는 10위로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토대는 매우 취약한 편임
-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충남의 농공단지 인근주민의 인식조사를 통해 유치기업의 지역기여 실태를 올바르게 살펴보고, 지역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차별화 지원과, 기업과 주민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2. 연구의 방법

-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지역주민의 지역기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음
 - 조사기간 : '10. 12. 6 ~ '12. 20(15일간)
 - 조사대상 : 1,000명
 - 조사방법 : 우편 발송 및 공문서 활용
 - 내 용 :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인식, 기업의 상생협력 실태, 상생협력하는 기업에 대한 의견, 차별화 지원에 대한 의견,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중요도분석의 5개 영역으로 구분

<표 2> 설문의 주요내용



- 설문의 개별 항목은 직업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

3. 분석결과

◆ 기초자료

<표 3> 기초분석

	빈도	백분율
공무원	180	19.89
농림어업종사자	123	13.59
사무종사자	240	26.52
기타	362	40.00

- 총 905부가 수집되었으며(회수율 90.5%) 이중 공무원이 19.89%, 농림어업종사자가 13.59%, 사무종사자가 26.52%로 나타남

1)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인식

◆ 지역주민과 기업의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인식

<표 4> 직업별

	알고 있음	모름	총합
공무원	89.44	10.56	100
농림어업종사자	54.47	45.53	100
사무종사자	68.75	31.25	100
기타	63.54	36.46	100

- 공무원의 대다수(89.44%)가 지역주민과 기업의 상생협력사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직업의 경우 공무원에 비해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인식률이 높지 않음
-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정도는 공무원, 사무종사자, 기타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순으로 나타남

<표 5> 지역별

	알고 있음	모름	총합
북부권	65.85	34.15	100
그 외 지역	69.95	30.05	100

- 충남의 16개 시·군 중 광·제조업이 발달한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보다는 그 외 지역에서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률이 더 높았으나 두 지역 모두 70%선을 넘지 못함

⇒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도차원의 홍보방안 마련 필요

◆ 지역주민과 기업의 상생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견

<표 6> 직업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총합
공무원	6.67	21.11	72.22	100
농림어업종사자	13.82	42.28	43.90	100
사무종사자	11.67	46.25	42.08	100
기타	12.71	43.09	44.20	100

- 공무원의 경우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72.22%)이 매우 높았으나 그 외 직업에서는 그 비율이 50% 미만에 그침

<표 7> 지역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총합
북부권	13.82	39.02	47.15	100
그 외 지역	10.47	39.61	49.92	100

- 충남의 16개 시·군 중 광·제조업이 발달한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과 그 외 지역 모두에서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하는 의견이 모두 50%를 넘지 못함

⇒ 상생협력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상생협력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상생협력사업의 주체

<표 8> 직업별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지역주민	기타	총합
공무원	5.00	27.22	56.67	10.56	0.56	100
농림어업종사자	9.76	26.83	46.34	17.07	0.00	100
사무종사자	11.67	50.83	27.92	7.92	1.67	100
기타	10.22	32.04	38.67	17.68	1.38	100

- 공무원 및 농림어업종사자의 경우, 상생협력사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는 기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사무 종사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9> 지역별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지역주민	기타	총합
북부권	4.88	39.84	38.62	14.63	2.03	100
그 외 지역	11.23	33.69	41.12	13.20	0.76	100

- 광·제조업이 발달한 북부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협력사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기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주민과 기업의 상생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기업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기업의 인식전환이 중요

⇒ 결국 지역주민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역주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기업을 연계 하고 기업은 프로그램 개발과 비용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

2) 기업의 상생협력 실태

◆ 기업이 상생협력에 노력해야하는지 여부

<표 10> 직업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총합
공무원	3.89	20.00	76.11	100
농림어업종사자	6.50	32.52	60.98	100
사무종사자	4.58	33.75	61.67	100
기타	5.52	28.73	65.75	100

- 모든 직업에서 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넘었으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 76.11%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11> 지역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총합
북부권	4.07	31.30	64.63	100
그 외 지역	5.46	27.92	66.62	100

- 광·제조업이 발달한 북부권과 그 외 지역 모두에서 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넘었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 내외였음

⇒ 많은 수의 지역주민이 상생협력을 위해 인근기업의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

◆ 기업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표 12> 직업별

	불편한 관계	보통	우호적 관계	총합
공무원	8.89	59.44	31.67	100
농림어업종사자	14.63	61.79	23.58	100
사무종사자	6.67	61.67	31.67	100
기타	8.01	63.54	28.45	100

<표 13> 지역별

	불편한 관계	보통	우호적 관계	총합
북부권	9.76	62.60	27.64	100
그 외 지역	8.35	61.76	29.89	100

- 모든 직업과 지역에서 우호적 관계라고 응답한 비중이 30%선에 불과하여 기업과 주민의 관계개선이 필요
 -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과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일반적인 주민과 기업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우호적인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
- ⇒ 주민과 기업의 상생협력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중개가 필요

◆ 기업의 현재 기여도

<표 14> 직업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총합
공무원	16.11	48.33	35.56	100
농림어업종사자	23.58	45.53	30.89	100
사무종사자	15.83	56.67	27.50	100
기타	20.72	52.21	27.07	100

- 모든 직업에서 기업이 현재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주민과 기업의 상생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음

<표 15> 지역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총합
북부권	19.51	46.75	33.74	100
그 외 지역	18.66	53.57	27.77	100

- 광·제조업이 발달한 북부권과 그 외 지역 모두에서 기업이 현재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고 있음
- ⇒ 기업이 주민과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3) 상생협력하는 기업에 대한 의견

◆ 기업의 이미지제고 여부

<표 16> 직업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총합
공무원	2.78	12.22	85.00	100
농림어업종사자	8.13	32.52	59.35	100
사무종사자	2.08	29.17	68.75	100
기타	5.80	30.39	63.81	100

- 모든 직업에서 기업의 상생협력사업이 기업의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공무원의 85%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7> 지역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총합
북부권	7.72	25.61	66.67	100
그 외 지역	3.34	27.16	69.50	100

- 지역별로도 기업의 상생협력 사업이 기업의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음

- ⇒ 기업이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이 반드시 수반되겠지만 기업의 이미지개선에는 도움이 됨

◆ 기업의 제품 구입여부

- 모든 직업에서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제품이 비싸더라도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40%를 넘지 못함

<표 18> 직업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총합
공무원	11.67	27.22	61.11	100
농림어업종사자	25.20	39.84	34.96	100
사무종사자	15.42	45.42	39.17	100
기타	17.96	42.54	39.50	100

<표 19> 지역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총합
북부권	27.24	34.15	38.62	100
그 외 지역	13.20	42.03	44.76	100

- 지역별로도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제품이 비싸더라도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보통이라는 의견도 높은 비율을 차지

⇒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도 가격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가격이 동등하다면 경쟁력에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 지역주민과 상생발전 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

4) 상생협력에 노력하는 기업의 차별화 지원에 대한 의견

◆ 기업의 상생협력사업 홍보여부

<표 20> 직업별

	공개적으로 홍보	비공개적으로 진행	총합
공무원	97.22	2.78	100
농림어업종사자	88.62	11.38	100
사무종사자	91.25	8.75	100
기타	87.29	12.71	100

- 모든 직업에서 기업과 지역주민의 상생협력사업을 공개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공무원의 경우 97.22%가 공개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응답

<표 21> 지역별

	공개적으로 홍보	비공개적으로 진행	총합
북부권	96.34	3.66	100
그 외 지역	88.32	11.68	100

- 모든 지역에서 기업과 지역주민의 상생협력사업을 공개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광·제조업이 발달한 북부권의 경우 공개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96.34%로 나타남

⇒ 지역주민과 기업의 상생협력사업은 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새로운 상생협력사업 발굴에 노력

◆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여부

<표 22> 직업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총합
공무원	2.78	19.44	77.78	100
농림어업종사자	4.88	26.83	68.29	100
사무종사자	4.17	23.33	72.50	100
기타	6.35	25.14	68.51	100

- 모든 직업에서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 77.78%가 그렇다라고 응답

<표 23> 지역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총합
북부권	5.28	17.07	77.64	100
그 외 지역	4.70	26.25	69.04	100

- 지역별로도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북부권의 경우 77.64%가 그렇다라고 응답

⇒ 중소기업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정책 중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차별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는 지역기업으로 하여금 상생발전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유인이 되며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음

5) 상생협력 프로그램 중요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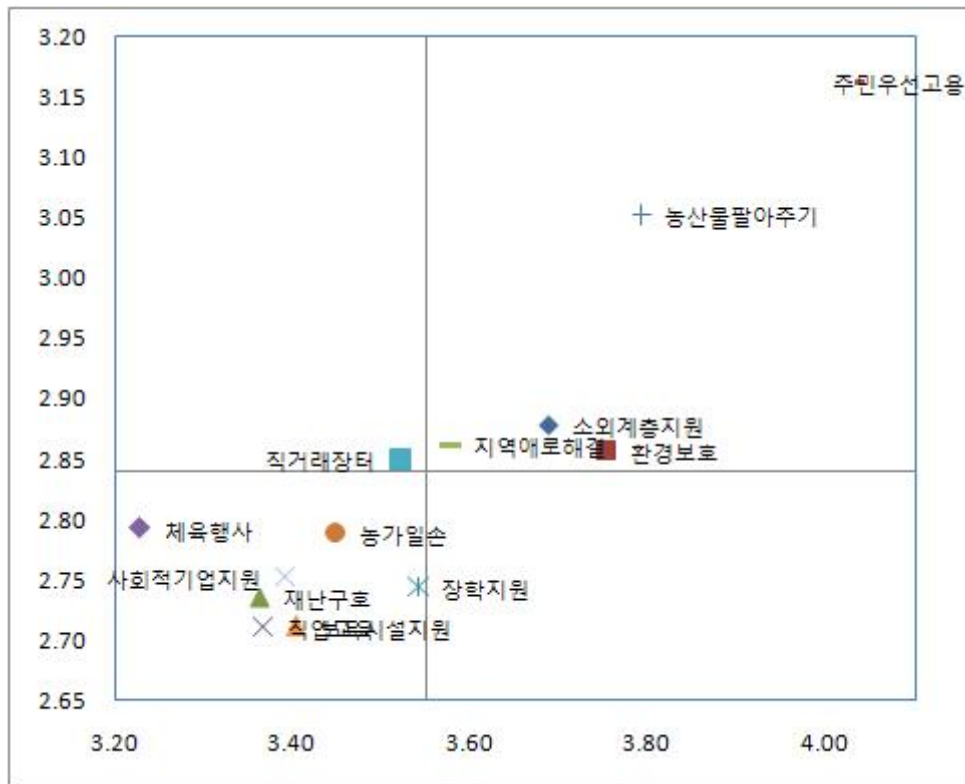
◆ 상생협력 프로그램 인지여부

상생협력사업	예	아니오
독거노인·불우이웃 등 소외 계층지원	51.27	48.73
지역 환경보호 및 환경정화	45.75	54.25
응급 및 재난구호활동	22.32	77.68
주민대상 직업교육활동	19.45	80.55
장학지원 사업	38.45	61.55
농가일손 돕기	38.34	61.66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56.57	43.43
지역주민 우선고용	68.62	31.38
기업이나 지역애로 공동 해결	40.88	59.12
체육행사 및 노래자랑 등 화합의 장 마련	41.55	58.45
농산물 직거래 장터(저렴하게 상호 구매)	35.80	64.20
문화·체육·보육시설 지원	30.28	69.72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	23.65	76.35

- 지역주민이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주민과 기업의 상생협력 사업은 지역주민 우선고용이었으며,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소외계층지원 순으로 나타남

◆ 상생협력 프로그램

- 본 절에서는 광·제조업이 발달한 북부권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분석
- 광·제조업이 발달한 북부권에서 강화유지해야 할 프로그램은 주민우선고용, 농산물팔아주기, 소외계층지원, 지역애로해결, 환경보호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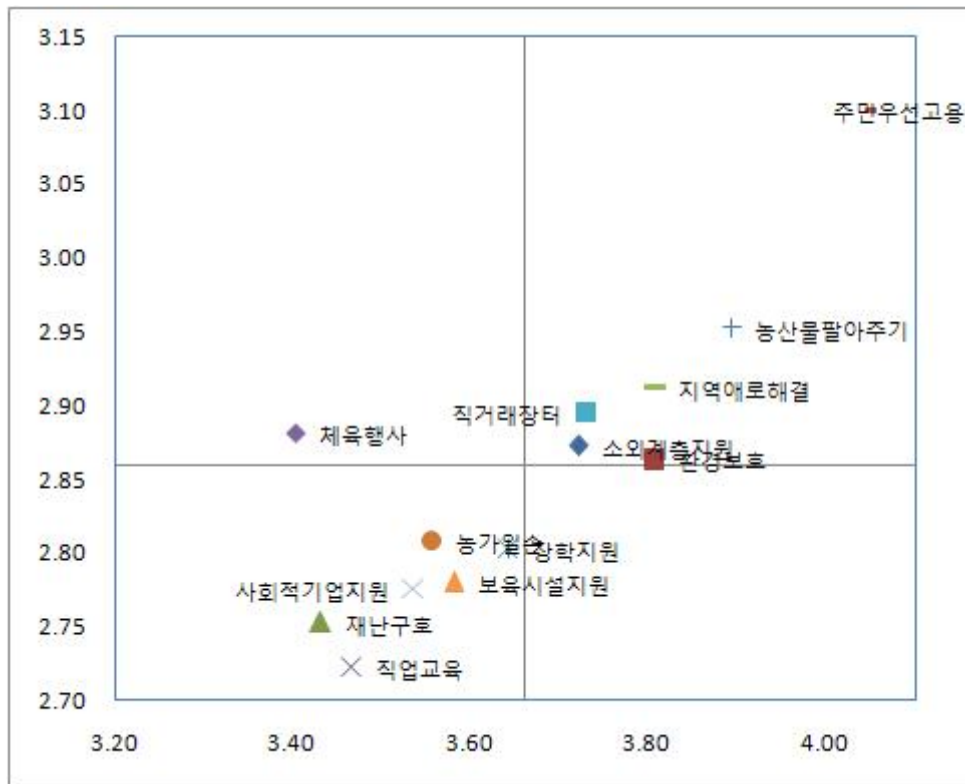


[그림 2] 북부권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중요도 분석

<표 25> 북부권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중요도 분석

	유지강화	중점강화	점진개선	지속유지
북부권	주민우선고용 농산물팔아주기 소외계층지원 지역애로해결 환경보호		체육행사 농가일손돕기 사회적기업지원 장학지원 재난구호 직업교육 보육시설지원	직거래장터

○ 그 외 지역에서 강화유지해야 할 프로그램은 주민우선고용, 농산물 팔아주기, 지역애로해결, 직거래장터, 소외계층지원, 환경보호로 나타났다



[그림 3] 그 외 지역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중요도 분석

<표 26> 그 외 지역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중요도 분석

	유지강화	중점강화	점진개선	지속유지
그 외 지역	주민우선고용 농산물팔아주기 지역애로해결 직거래장터 소외계층지원 환경보호		농가일손돕기 장학지원 사회적기업지원 보육시설지원 재난구호 직업교육	체육행사

⇒ 광·제조업이 발달한 북부권의 경우 직거래장터의 중요도가 그 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두 지역 모두 주민우선고용과 농산물팔아주기, 지역애로해결, 소외계층지원, 환경보호였음

⇒ 지역별로 그 지역현실을 반영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4. 결론 및 요약

<표 27> 연구 요약

분석결과	대응방안
주민과 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	○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도차원의 홍보방안 마련 필요 ○ 상생협력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상생협력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주민과 기업의 상생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기업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기업의 인식전환이 중요 ○ 결국 지역주민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역주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기업을 연계하고 기업은 프로그램 개발과 비용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
주민과 기업의 상생협력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관계개선도 시급	○ 많은 수의 지역주민이 상생협력을 위해 기업의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 ○ 주민과 기업의 상생협력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중개가 필요 ○ 기업이 주민과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상생협력사업이 기업의 이미지개선에 도움이 되나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기업이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이 반드시 수반되겠지만 기업의 이미지개선에 도움이 됨 ○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도 가격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가격이 동등하다면 경쟁력에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 지역주민과 상생발전 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

상생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유인정책이 필요	○ 지역주민과 기업의 상생협력사업은 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새로운 상생협력사업 발굴에 노력해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정책 중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차별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는 지역기업으로 하여금 상생발전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유인이 되며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음
지역별(시군별)로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상이할 수 있음	○ 광·제조업이 발달한 북부권의 경우 직거래장터의 중요도가 그 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두 지역 모두 주민우선고용과 농산물팔아주기, 지역애로해결, 소외계층지원, 환경보호였음 ○ 지역별로 그 지역현실을 반영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본 분석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주민들은 기업과 주민의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차원의 홍보방안 마련과 상생협력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둘째,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낮은 인식률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지역주민과 인근기업의 상생협력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과 기업과의 관계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과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대화채널 확보가 필요함

- 셋째, 기업차원의 상생협력사업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수반하나 이와 같은 기업의 지역기여는 기업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며 기업의 매출과 이윤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넷째, 기업의 지역기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유인이 필요하며 따라서 도차원의 지원책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주민과 기업의 상생발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
 - 충남의 시군별 특색과 가용자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지역주민과 기업의 상생협력사업은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주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도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먼저 유치기업에 대한 지역기여도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유치기업의 지역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 이때 평가지표는 기업 스스로 작성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우리연구원에서 유치기업의 지역기여도 분석이 진행 중에 있음

- 아울러 상생협력을 중개하는 시군의 시군평가표도 별도 개발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개발해야 할 것임